http://biz.pusan.ac.kr

2018 SPRING vol.14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NEWSLETTER

효원경영

http://
biz.
pusan.
ac.kr

CONTENTS

2018 SPRING
vol.14

GREETING

04 효원경영 14호 발간 축하 | 김종관

NEWS BRIEF

06 주요 뉴스 | 교수 소식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10 국제 관련 | MBA 경영대학원 | AMP 최고경영자과정 | 동문회

SPECIAL ISSUE

14 대외활동 | 삼성 드림클래스

16 학생회 | 2018 학생회 소개

18 특집 |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

COLUMN

24 취업수기 1 | 김태일 인천국제공항공사

26 취업수기 2 | 이유현 삼성전자

30 학생칼럼 | 이재준 아산서원

34 교환학생 수기 | 강민재 네덜란드 교환학생

DEVELOPMENT FUND

36 경영대학 발전기금

EDITOR'S COMMENTS

42 편집후기

발행일 2018년 4월 19일
편집원 강민재, 김나령, 김윤지
디자인 부산대학교출판부 051.510.1935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전 화 051. 510. 1854

편발행 학장 김종관
팩 스 051. 581. 3144

편집장 조교 이수지
http://biz.pusan.ac.kr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 종 관

변화하는 경영대학(원), 도약하는 경영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위한 화합과 협력의 진정한 공동체, 미래로 도약하는 경쟁력 있는 경영대학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작년 9월 경영대학(원)장에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

모교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누렸던 감사함을 저는 9년여 남은 정년을 앞두고 어떻게 봉사하며 보답해야 할 지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하지 못하고, 우리 대학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70년대 학번의 선배님들께서는 당시의 위상을 아쉬워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경영대학은 꾸준히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점 국립대학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현재 중앙일보 국내대학 경영학과 평가에서 8위를 하였고, 곧 Top 5 경영대학으로 그 위상을 되찾아 낼 것입니다.

제가 경영대학(원)장에 취임한 지난 6개월 동안 58학번 고 안시환 선배님께서 장학금 1억원을 쾌척해 주셨고, AMP 총동문회장이셨던 패션그룹 형지의 최병오 회장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씩, 2억원을 흔쾌히 기부해 주셨습니다. "패션그룹 형지의 발전과 부산대 경영대학의 발전을 함께 하시겠다"하시며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지원해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경영학과 교수님들께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경영대학이 되기 위해서 꾸준한 연구와 혁신적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세계적 권위의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송태호 교수님께서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시는 등 연구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며, 혁신적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서 저는 신진 교수님들과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들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 경영대학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국립대학이라는 한계로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서는 수도권의 우수 사립대학들에 뒤쳐지고 있습니다만 교수 연구 업적, 선배 평판도, 국제화 수준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원)은 올해 3~4명의 신임교수를 충원하고, 금융대학원 개원을 전제로 강의실을 첨단화하며, 1982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지만 「아름다운 경영대학」을 슬로건으로 지속적인 교육·연구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경영대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시러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해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대학들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좋은 대학은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우수한 국가는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대학은 지역사회, 국가의 뿌리이며, 기둥입니다. 명문대학은 그 도시를 빛내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이며, 현재 최고의 지역 거점대학인 우리 부산대학교는 전통과 역사에 비해서 그 위상을 크게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적 한계도 있지만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여 공업화·근대화과정 속에서 공과대학 특성화만 추진되었고, 특정시점에서는 의과대학의 발전에 대학의 중추적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글로벌 관문이며 해양·물류의 거점인 우리 부산대학교는 경영대학(구. 상과대학)의 발전 없이 세계적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이 대학민국의 금융중심도시가 되면서 금융분야의 육성도 부산대학교 뿐만 아니라 부산의 미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영대학이 우수한 대학이 좋은 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동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교수 수에서 50% 이하이면서도 그 경쟁력을 크게 잃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기준 10대 그룹 임원 수에서 우리대학은 서울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였고, 30대 그룹 임원 수에서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모든 위상이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계셨기에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는 안타까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모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소중한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친애하는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오셨지만, 경영대학을 위해서 조금만 힘을 더 보태어 주십시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앞길에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경영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 경영대학원,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원우 여러분!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격언도 수 없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갑시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갑시다.

부산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자존심이 되도록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급속하게 변화시키더라도 우리의 단결된 힘과 자긍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경영대학 가족 여러분들은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굳건한 단결력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자긍심과 감성리더십을 통해서 글로벌 경영대학이 되도록 협력해 나갑시다. 경영대학이 좋은 대학, 부산대학교가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원)장
김 종 관 드림

Main News
주요뉴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대학원 개원

부산대학교는 2017년 10월 25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한국 해양대, 부산시, 금융위원회와 '부산 금융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부산대는 2020년까지 학생 교육경비, 시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총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 경영대학은 오는 9월부터 기존 대학원 과정과 차별화된 금융대학원을 개원하며 5월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금융대학원은 학부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생을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25명이다. 외국인 학생의 지원 또한 허용할 예정이며 글로벌 금융인 양성을 위해 대부분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한다. 학위 과정은 국제적 수준의 석사 학위 교육과정으로 3학기제로 운영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첫 금융대학원장으로는 경영대학의 재무관리 담당 교수인 고광수 교수가 임명되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경영대학의 금융대학원이 실무적 능력을 갖춘 고급 금융 전문 인력의 배출을 통해 향후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 금융 전문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

hyungji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 부산대와 경영대학(원)에 5억 원 출연 약속

종합패션유통기업인 패션그룹형지를 이끌고 있는 부산 출신의 기업가 최병오 회장이 경영대학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 5억 원을 김종관 경영대학(원)장에게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2억 원을 먼저 부산대학교에 출연하였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60기인 최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부산대 AMP 총동창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하셨고,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

최병오 회장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집중화 현상에서 벗어나 지방 국립대학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길일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인으로서 제 고향의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에 세워진 경영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경영대학으로 발전돼 미래의 훌륭한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출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5억 원 약정 이외에도, 최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 지원과 부산대 개교 70주년 기념 등을 위해 총 7,600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왔다. 특히 부산대 개교 70주년에는 기념티셔츠 1만 장을 기증해 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무료 전달, 부산대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이날 출연된 발전기금은 최병오 회장의 취지를 살려 부산대학교의 발전과 부산대 경영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연구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부산대의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특별 강좌 지원과 경영대 국내 Top5 프로젝트 지원, 국제화 및 국제교류 지원 등 기업가정신과 지방 국립대학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김종관 경영대학(원)장은 "최병오 회장님의 기금 출연은 부산대학교와 특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우리 대학은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기려,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로 화답하였다.

Professor News
교수소식

2018년 상반기 SCI(E)급 국제 저널 논문게재실적

김동일 교수(외 Bong-Hyun Kim)의 "Development of Children's Story Production System for Children Creativity Improvement" 논문이 SCI(E)급 저널인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2018/2)에 게재되었다.

*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 is a peer-reviewed scientific journal published by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It covers mobile communications and computing and investigates theoretical, engineering, and experimental aspects of radio communications, voice, data, images, and multimedia. This includes propagation, system models, speech and image coding, multiple access techniques, protocols performance evaluation, radio local area networks, and networking and architectures. (출처 : Google Wikipedia)

Scholarship
장학

DB김준기 문화재단 장학금 지원

DB김준기 문화재단은 DB그룹(구 동부그룹) 설립자 김준기 회장이 기금 출연하여 1988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가 ·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 학술연구지원사업 · 교육기관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본 재단에서 2017년 11월 15일에 금융, 주식 투자에 대해 연구하는 부산대학교 학술동아리 SMP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이에 지도교수인 이장우 교수는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재원 장학생으로 수업료Ⅰ+수업료Ⅱ, 수업료Ⅱ, 수업료Ⅱ 1/2, 수업료Ⅱ 3/4 지원으로 나뉘었는데, 2017학년도 2학기 장학생 총 227명이 지원 받았고, 남안장학생 1명 100만원, 생활협동조합장학금 4명 각 50만원, 두을장학재단 1명 228만원,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2명 1200만원, 연당장학회 1명 200만원, 우덕재단 1명 168만원, 인산장학금 2명 각 105만원 등 총 25명이 외부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2018 신입생 예비대학

경영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선배들과 떠나는 신입생 예비 대학이 2018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경주 블루원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예비 대학은 올해 3월 입학하게 되는 18학번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이며, 선후배를 포함 약 350명이 함께 떠나 단체 생활을 통해 단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예비대 행사의 목적은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선후배 및 동료 간의 만남을 통해 학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향후 진로 등에 관한 조언 등 유익하고 친목도모를 위한 단합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행사는 경주 숙소로 이동 후 과 잠 배부, 반별 자체 프로그램, 상상유니브와 소방서 화재예방 교육을 통한 연사 초청 강연,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IBK 투자증권사장 강연회

2017년 9월 21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투자의 기초'의 저자이자 현 IBK 투자증권의 신성호 사장이 '청년, 경제와 놀자' 강연을 펼쳤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강연회는 "청년, 돈 앞에 당당하자! 거침없이 경제와 놀자!"라는 주제의 북 콘서트 형식으로 총 2부로 구성되었다. 신성호 사장은 1부 청년 이야기에서는 변화와 도전, 성장을 테마로 저자의 청년시절 도전에 대해, 2부 경제 이야기에서는 청년 투자의 기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대학 교수 연찬회

2018학년도 경영 대학 교수 연찬회가 1월 26~ 30일 닷새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찬회에는 김종관 학장, 김동일 부학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교수 및 5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연찬회의 목적은 창조적 인재양성과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경영대학의 발전 및 화합으로써, 구체적으로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교과 과정 개편 및 연구 증진 방안, 경영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및 발전방안, 금융 대학원 설립을 위한 경영대학의 역할에 대한 발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 전통 시장, 중세도시 유적지 등 탐방 활동과 해양 스포츠 체험 등 심신 단련을 통해 구성원 간 소통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적 변화에 적응하는 토대를 구축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로 행사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재학생과 유학생이 소통하는 경영학과의 대표적인 행사인 '한아로'행사가 이번 학기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한아로 행사는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에 진행되었으며, 사전 신청 방식을 통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행사의 큰 특징은 재학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노오븐 베이킹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5000원의 신청비를 통해 함께 즉석에서 티라미슈를 만드는 체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가졌다. 재학생과 유학생이 어울리는 한아로 행사는 경영대의 자랑거리로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경영학과 사무실 1층 이전 및 정보검색실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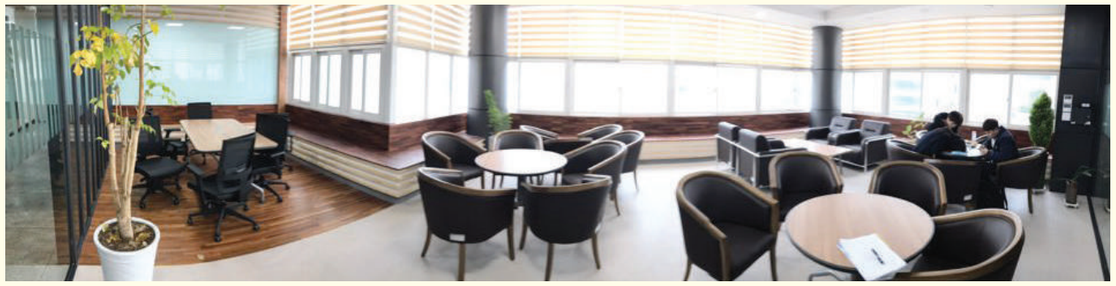
경영학과 행정실과 과사무실은 기존에 통합된 공간으로 운영되었으나, 행정실은 경영관 A동 2층으로, 과사무실은 경영관 A동 1층으로 분리되었다. 기존 과사무실이 행정실로 변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사무실은 기존 인터넷 카페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더불어 기존 인터넷카페가 폐쇄되고 2017년 12월 4일부터 새로이 정보검색실이 개방되었다. 정보검색실에는 데스크톱 전용 좌석뿐만 아니라 노트북 사용자를 위한 콘센트가 설치된 좌석 또한 구비되어있다. 더불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사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프린터기와 연결된 PC 또한 편의를 돕고 있다. 정보검색실은 경영관 A동 1층 103-5호에 위치하고 있으니 학우 여러분들의 활발한 이용을 바란다.

경영관 A/B동 정원공사

경영관 A동과 B동 사이 종전 주차장이 2018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 사이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기존의 삭막했던 회색빛 시멘트 바닥을 제거하는 대신 보행로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 정원 공사는, 갖가지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사 결과 정원은 학우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대학원 4층 라운지 개설

2018년 3월 경영대학 금융대학원에서 학업에 지친 금융대학원생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관 A동 4층 로비에 금융대학원 라운지를 개설하였다. 새로 지어진 이 라운지는 출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해 복도와 구분되게 하였으며, 다수의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학우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학우들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더 발전하는 효원 경영인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의 위상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금융대학원생이 되기를 기대한다.



첨단강의실 개설

2018년 3월 금융대학원과 관련하여 경영관 B동 213호, 213-1호, 310호, 310-1호에 전자칠판이 있는 첨단 강의실이 개설되었다. 기존 강의실과의 차이점은 전자칠판과 스크린 및 프로젝터 2개를 수용하여 더욱 교육적 효과를 높인데 있다. 전자칠판은 전자칠판용 특수 삼색 펜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화면에 바로 판서할 수 있으며 판서한 내용 및 화면을 전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듀얼 모니터 기능을 통해 스크린 2개와 전자칠판 화면으로 동시에 여러 페이지를 접할 수 있어 화면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음향시설 또한 첨단 기기를 통해 잡음을 없앴다. 끝으로 둥근 테이블은 이전의 일자형 책상보다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편의를 돕고 있다. 이러한 첨단 학습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학우들의 학습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tudent Awards
학생수상

2017 리서치 알음배 투자분석대회 – 최우수상

2017 리서치 회사인 리서치알음의 대학생 투자분석대회에서 부산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포함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팀은 경영학과의 학술 동아리인 SMP의 회원들로 SMP 20기 조정현(경영학과 14), SMP 20기 박수현(수학교육과), SMP 21기 임상균(경영학과 13)로 이루어졌다. 수상한 팀의 경우 팀워크가 매우 좋았고 각자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내었다고 한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팀의 큰 강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7 부산시장배 기업분석대회 – 우수상

2017 부산시장배 기업분석대회에서 경영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 팀은 경영학과 학술 동아리 SMP의 회원들로 이루어졌으며 SMP 20기 이선학(경영학과 13), SMP 20기 이승민(경영학과 13), SMP 20기 이민섭(경영학과 13), SMP 21기 양도영(경영학과 14)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팀의 특징으로는 경영학과 4인방의 협력과 협업이 빛을 발하였으며, 비슷한 나이대의 같은 학과 선 후배 사이의 팀원들이다 보니 팀워크가 뛰어났고 이것이 기업분석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7 뱅커스 모의투자 대회 – 2위

2017 뱅커스 모의투자 대회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는 명예를 누렸다. 이들은 경영학과 동아리 SMP의 회원들로 각각 SMP 19기 배진욱(경영학과 14), SMP 20기 조동석(경영학과 14), SMP 20기 조민정(사회복지학과 17)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이것을 원활히 진행하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의 짧은 기간 안에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내었으며, 팀원들의 소통 능력이 큰 장점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국제관련

말레이시아 사인스말레이시아대학교(USM)와 단위기관 협정 갱신

말레이시아 사인스말레이시아 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은 2014년 8월 5일부터 3년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 학생 교환, 교직원의 교환,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의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MOU가 만료되어 기존 협정에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2018년 1월 최종 승인되었다.

사인스말레이시아 대학교는 1969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국립대학으로서 학부와 대학원 학생 수는 약 30,000명에 달하며 17개의 단과대학을 거느리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임교원의 수는 1,500명에 이르며 전체 대학의 아시아 대학 순위는 60위권으로 부산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및 교직원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상호 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USM과 우리 경영대학 교수진의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연구 성과를 양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경영대학원

경영인의 밤

2017년 12월 7일 저녁 6시, 부산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영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러 교수님과 MBA 간부진, 이하 선후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원우들은 조선비치호텔에서의 공식 행사 이후 더베이 101에서 뒤풀이 자리까지 이어져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MBA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8년 2월 7일 저녁 7시, 국제관 B101 대강의실에서 MBA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김종관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해 총동창회, 원우회, 재학생이 109명의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꾸며져 1부에서는 입학 허가와 축사 및 신입생의 선서, 2부에서는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안내, 3부에서는 원우회 소개가 진행되었다. 신입생들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 밥차

2017년 11월 25일 부산 시청 녹음광장에서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MBA 원우회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해 작은 마음을 모아 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MBA 원우회와 가족들은 부산밥퍼나눔공동체를 찾은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식사준비, 배식, 설거지 및 청소를 도왔다. 또한, MBA 원우회는 부산밥퍼 나눔 공동체에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원우회와 가족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힐링캠프

2017년 10월 28일 MBA원우 회원과 가족들이 경상남도 산청군 남사예담촌으로 힐링캠프를 떠났다. 원우회 가족들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남사예담촌에서 멋스러운 고택과 정겨운 돌담길의 경치를 바라보며 전통마을의 풍경을 둘러 보았다. 또한, 남사예담촌의 명물인 '부부 희화나무'를 구경하고, 떡 방아 찧기와 다도 체험을 하는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최고경영자과정

AMP 67기 최고경영자과정 2학기 종강식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롯데호텔 42층 아스토룸에서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7기생들의 2학기 종강식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2학기 종강행사로 최고경영자과정 제67기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새 정부 일자리 정책' 특강이 진행되어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행사는 특강 이후 와인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AMP 67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최고경영자과정 제67기의 수료식이 2018년 2월 21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 제 67기생 44명이 수료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과 AMP 총동문회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수료증 및 상패전달, 전호환 총장 치사, 김종관 경영대학원장 식사, 임영하 학생회장 답사로 이루어졌으며 임영하 AMP 67기 학생회장은 총장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Alumni Association
동문회

제 2회 부산상대동문회 등반대회 개최

2017년 10월 28일 금정산 상마마을 코스에서 제2회 부산 상대 동문회 등반대회가 개최되었다. 너무나 청명한 날씨 속에서 동문, 전직 교수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하며 동문 선 후배 간에 소중한 의리를 나누었다. 단풍이 물들고 있는 금정산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명랑운동회에서는 빗자루 퍼트 대결, 제기차기 그리고 족구 게임이 이어졌다. 모두가 많이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더 성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기대한다.

동문회 회장단과 전, 현직 학장 오찬간담회

2017년 12월 13일에 전, 현직 학장 3명과 동문회 회장단이 모여 총 7명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양일상 회장, 옥상곤 수석부회장, 최승조 사무총장, 변종문 사무국장, 김영재 전 학장, 김종관 경영대학장, 강상목 경제통상대학장이 참석하였다. 대화의 주제는 부산 상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재학생 지원과 더 친숙하고 발전적인 동문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들이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두 학장의 동문회에 대한 큰 관심과 참여로 교수진들과도 더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효원회 정기 총회 및 상대동문회 이사회 결과보고

부산 상대 동문회의 핵심 모임인 효원회의 2017년 마지막 라운딩과 정기총회 그리고 상대 동문회 이사회가 2017년 12월 14일에 개최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상대 동문들의 우정과 열정에는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총 7개조가 라운딩을 했고, 만찬 모임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신년 사업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진행된 차기 회장단 선출에서는 옥상곤 동문(74학번), 홍성곤 동문(84학번)이 각각 회장, 총무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상대 동문회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경과보고와 재무보고, 2018년 사업 계획 발표가 있었다. 한 해 동안 동문회에 보여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한 해도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인생의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삼성 드림클래스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들을 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을 시도한다. 그러한 대외활동들은 학교를 다니는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제공하며 이는 우리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효원경영에서는 그러한 대표적인 대외활동의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삼성에서 매 학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삼성 드림클래스'이다. 이 활동은 교육 봉사 및 멘토링, 튜터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픈 대외활동이다.

삼성
드림클래스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강사들이 주중, 주말 교실 및 방학 캠프를 통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중학생들은 대학생 강사들을 통해 학습적 성취도와 같은 교육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대학생 강사들은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중학생과 대학생 강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드림클래스는 크게 학기 중에 진행되는 주중, 주말 프로그램과 방학 중 진행되는 방학 캠프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중, 주말 프로그램은 학습 의지는 있으나 정규 수업 외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들에게 방과 후 주요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드림클래스를 운영하는 중학교의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 1,2,3학년 학생이며 수업은 대학생 강사의 주중 접근성이 뛰어난 주요 도시에서는 주중에, 주중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중, 소 도시에서는 주말에 진행된다. 대학생 강사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며, 주중에는 1일 2시간, 주말에는 1일 4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주중 교실의 경우 영어는 월/목, 수학은 화/금에 수업이 진행되며 차이는 있으나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수업이 진행된다.

방학캠프의 참여 대상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읍, 면, 도서지역의 중학교를 다니거나 군 부사관, 소방서, 유공자 자녀로 지역에 거주하여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 1,2학년이다. 수업은 방학 중 3주 동안 합숙 캠프를 통해 진행된다. 방학캠프에서 대학생 강사는 진행강사와, 수업 강사로 나누어진다. 진행강사는 삼성 직원과 함께 프로그램 준비, 복리후생, 인력 관리 등 캠프의 전반적인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며, 수업 강사는 10명 내외의 한 학급으로 이루어진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지원 시 예비 대학생 강사들은 자신의 성향과 재능에 맞게 진행 강사와 수업 강사 중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드림클래스의 대학생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학기 중 강사는 최소 6개월 이상 수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또한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선발은 서류접수, 면접, 연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개인 질문과 돌발 질문이 제시되며 면접관들 앞에서 수업 분야에 따른 시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시범강의는 실력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계발과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드림클래스는 인생의 경험과 멘토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영 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삼성 드림클래스를 추천하는 바이다.

"1300 경영인의 DREAM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DREAM이 되겠습니다."
제8대 경영대학 학생회 선거일
11월 28일 (화) ~ 29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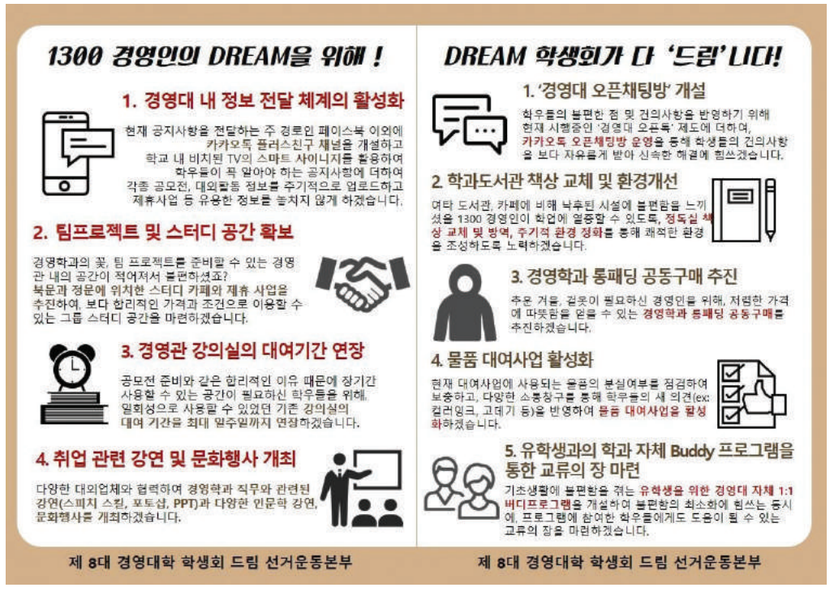
2017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영관, 그리고 모바일에서 제 8대 경영 대학 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7대 학생회인 '파란'을 잇는 8대 학생회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많은 경영 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쏠렸으며, 그 결과 제 8대 학생회인 '드림(DREAM)' 학생회가 탄생하였다.

제 8대 드림 학생회는 학생회장 강성훈(경영학과 14), 부 학생회장 윤현정(경영학과 16)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Give;For Dream'이라는 문구와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개설 등을 통한 경영대 내 정보 전달 매체의 활성화, 부산대학교 북문과 정문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와의 제휴 사업을 통한 팀 프로젝트 및 스터디 공간 확보, 경영관 강의실의 대여시간 연장, 스피치 스킬, 포토샵, PPT와 같은 경영학과 직무에 관련된 강연과 취업 관련 강연 및 문화행사 개최가 있다. 또한 카카오톡 '경영대 오픈채팅방' 개설, 학과 도서관 책상 교체 및 환경개선, 경영학과 롱패딩 공동구매 추진, 물품 대여사업 활성화, 유학생과의 학과 자체 Buddy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의 장 마련 등이 있다.

이 중 경영학과 롱패딩 공동구매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공약으로, 학생회 당선된 이후 즉시 실행되었는데, 양질의 롱패딩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롱패딩 그 이상의 단합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

2018 학생회 소개



1300 경영인의
DREAM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DREAM이 되겠습니다

Give; 드림
For Dream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

스완베이커리,

장애인고용의 지속가능성을 찾으러

팀명 : 제빵왕 김경영
작성자 : 김준우(경영학과), 심동기(경영학과)
탐방국가 : 일본(도쿄)
탐방기간 : '18. 1. 22(월) ~ '18. 1. 26(금)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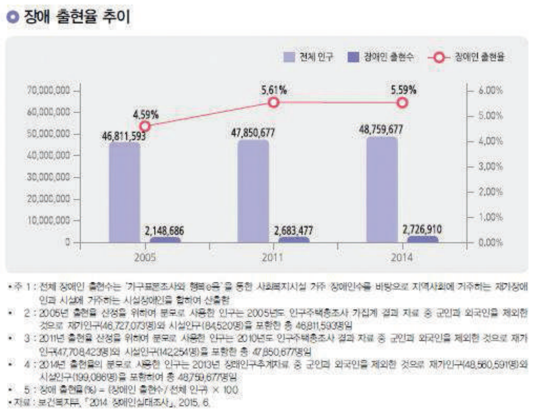
▲ 이미지 출처 : 스완베이커리 홈페이지 http://www.swanbakery.jp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는 경영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경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국제화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회이다. 2017년 Pnubiz 경영사례연구 경진대회에서는 '제빵왕 김경영' 팀(경영학과 심동기, 김준우)이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그들의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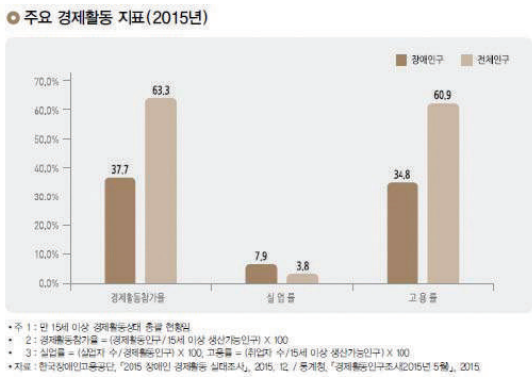
1. 탐방배경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실태

그림 3을 살펴보면 장애인 총인구수와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 이어서 그림 4를 보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14년도 39%에서 15년도 37%로 감소하였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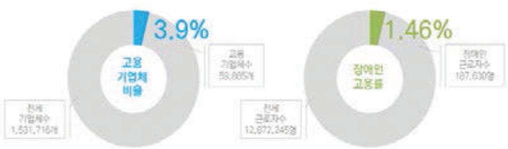


〈그림 3〉 장애 출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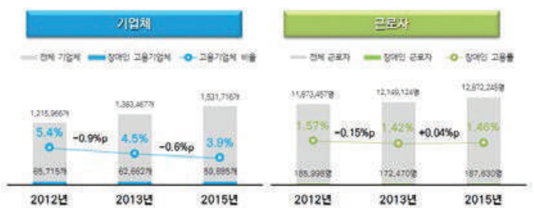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경제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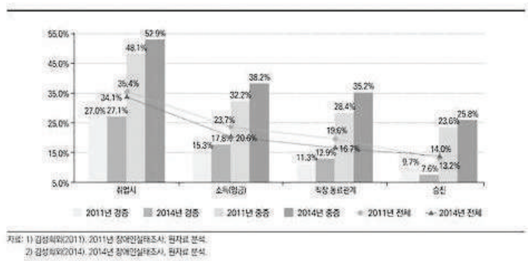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5를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3.9%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1.46%임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매년 장애인 고용업체가 줄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고용률 역시 매년 떨어지고 있음이 그림 6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말했던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더 세부적으로 직장생활에 한정해서 보면, 소득, 승진, 대인관계 등에서 모두 심각하다는 것을 그림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림 5〉 장애인 고용업체 비율 및 장애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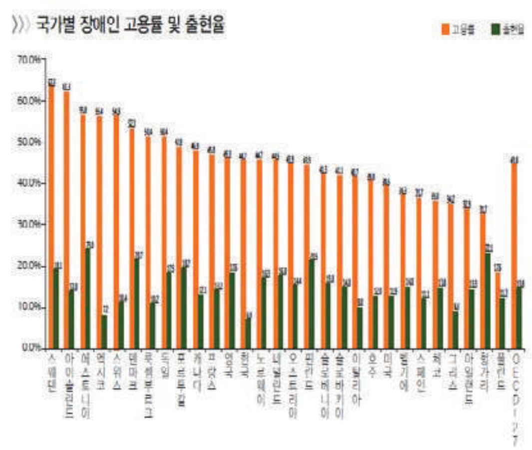


〈그림 6〉 장애인 고용 기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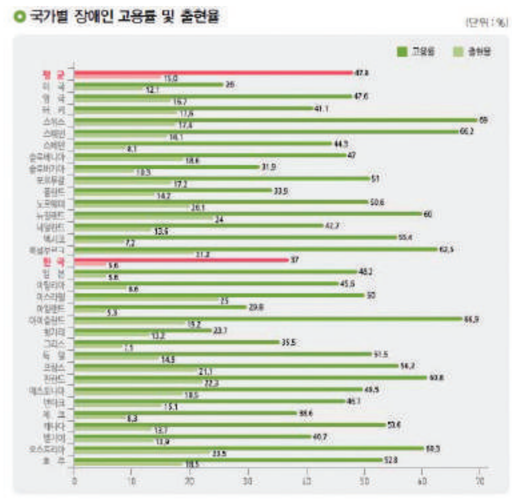


〈그림 7〉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OECD와 함께 살펴보면 한국의 장애인 고용률이 얼마나 낮으며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16년 장애인 고용률이 201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OECD 전체 장애인 고용률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사실은 2016년에 한국은 OECD 중 장애인 고용률로 27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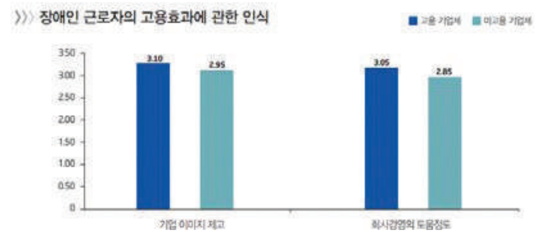
〈그림 8〉 2015년 OECD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출현율



〈그림 9〉 2016년 OECD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출현율

2)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장애인 고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을 계속 창출해내야 하는데 과연 장애인을 고용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9년 미국의 논문에 따르면 국회의 경우 장애인에게 1원을 투자하면 17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복지나 고용을 위한 투자가 절대 낭비가 아니며, 어느 기업의 이윤보다도 높음이 확인되었다. 2003년 국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3배의 장사임을 밝혔다. 즉, 훈련비와 고용 프로그램비를 1인당 장애인 고용투자비로 하고, 국가의 수급비 절약과 개인 소득 측면에서 막대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평생 매년 지급할 것을 1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 장애인 고용투자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 플로리다 직업 재활평가보고서에서 종전에는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연구에서 10배 이상의 편익을 말하였다 하지만, 정교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지적장애인의 보호 고용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플로리다 장애인 전체 직업 재활프로그램의 사회적 편익은 8배이며, 지적장애인만을 계산하면 0.75배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장애인 고용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는 서울 서부복지관을 기준 지적장애인 고용 편익은 1.39배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학습장애 고용 편익은 2.47배로 보고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보고서에서 장애인 고용으로 기업 이미지와 회사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CEO들이 직접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득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그래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단위: 점, 개)

구 분	전 체 (고용+미고용)	장애인고용 여부: 고용	장애인고용 여부: 미고용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비의무 (5~49명)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의무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50~299명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300~999명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1,000명 이상	부담금 납부대상 (100명 이상)
기업 이미지 제고	2.96	3.10	2.95	2.95	3.11	3.09	3.21	3.30	3.18
회사경영의 도움정도	2.87	3.05	2.85	2.86	3.04	3.02	3.16	3.24	3.13
(응답 추정수)	[389,410]	[40,905]	[348,505]	[364,294]	[25,116]	[22,027]	[2,461]	[628]	[12,356]

〈그림 11〉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표

02. 기업분석

1) 기업 소개 및 현황

(1) 기업 환경

스완베이커리는 현재 직영점 4개, 가맹점 23개로 전국에 2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약 35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주식회사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이 전혀 없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엄연한 기업으로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 내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날 때도 있다. 수익 보완 사업으로서 연말 기념일에 다카기 베이커리라는 제과점에서 제작한 케이크를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장애인 고용

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스완베이커리는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따로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는다. 단순히 빵을 제작하는 기업인데 장애인 근로자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채용할 때부터 본인의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시키려고 하고, 계속 실수하면 혼내기도 한다. 장애인들의 임금은 일본의 최저시급인 958엔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일 7시간 근로하여 1달 임금은 약 15만 엔이다. 개인적인 지원금까지 합하면 한 달에 20만 엔을 받는다.

2) 왜 스완베이커리인가?

스완베이커리를 조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였기 때문이었다. 스완베이커리가 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3가지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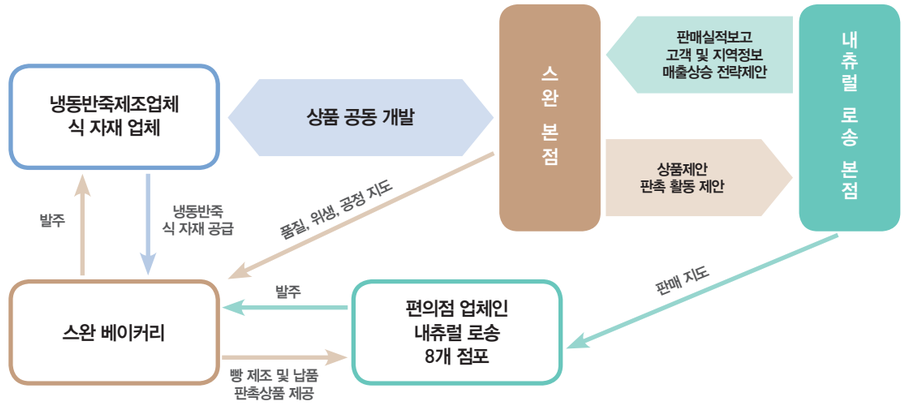
첫째, 경영 능력 전문화이다. 故) 오구라 회장은 대부분의 장애인 채용 회사들이 장애인 고용을 지속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경영 능력의 부족으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야마토 택배회사를 운영하며 향상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스완베이커리의 제품이 잘 팔리고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지자체와의 협력이 있었다. 스완의 경우 지점별로 주변 관공서나 정부 기관, 편의점 업체에 협약을 맺어 직접 만든 제품을 팔고 납품하였다. 이렇듯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형 제과업체인 다카기 베이커리와 협력하여 독자 개발한 고품질의 냉동 반죽을 사용하여 장애인도 손쉽게 빵을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6개월간의 잘 짜인 훈련, 세부 행동 지침, 업무 단순화, 작은 성과도 크게 격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도 질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추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스완베이커리 장애인의 급여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15만 엔이다. 이는 설립했을 당시부터 CEO의 바람이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좋은 제품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 이미지 출처 : https://blog.naver.com/kasw21/10126468652



〈그림 15〉 스완베이커리의 사업모델

3) 사업모델을 통한 원인 분석

〈그림 15〉 스완베이커리의 사업모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알 수 있다. 먼저 故) 오구라 회장이 일본 대형 제과업체인 다카기 베이커리에게 협조를 구해 냉동반죽을 납품받았다. 그리고 내추럴 로손이라는 일본 편의점 업체와도 협력하여 편의점에 스완이 만든 빵을 납품하고, 서로가 가진 제조기술을 공유하고 PB화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지역 네트워크는 스완은 매장 내에서만 판매하지 않고 시청, 학교, 보육원, 관공서 등 여러 공공기관으로 출장, 택배판매 관계를 구축했다. 스완베이커리만의 노력 덕분에 스완은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몇몇 점포는 매장 판매보다 출장, 택배 판매 비율이 더 높은 곳도 있었다. 그리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달성하였다.

03. 스완에게서 배우는 교훈

일본에서 스완베이커리를 방문하고, 한국에서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방문하였다. 두 기업 모두 장애인을 고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일을 하는 기업이었다. 그중에서도 스완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꼽으라면 'Normaliz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일상화, 보편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특수하게 보고 격리하여 처우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자유롭게 융화되어 보통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누린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스완베이커리는 비영리 단체나 복지단체도 아닌 평범한 주식회사이다. 매장에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팻말이 어디에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금도 받고 있지 않다. 일본에 사는 현지인들조차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스완 본점의 매니저인 藤野(Fuzino) 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을 특별히 부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장애인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몸이 좀 더 불편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 보통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가맹점을 늘리는 기업들은 지자체나 민간업체에 협력을 구하거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행복한 베이커리를 예로 들면 장소 제공을 서울시에게 도움받고, 푸르메 재단에게 교육과 운영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스완베이커리는 가맹점 설립을 본사에서 먼저 결정하는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가맹점이 되고 싶다고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마저도 월 400만 엔의 매출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 스완베이커리라는 기업 하나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사업자 다수가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태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학교 내 경험이

가장
큰 자산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2학번 김태일입니다. 2년 동안 효원 경영 편집원으로서 몸 담으면서 항상 다른 선배들의 취업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막상 제가 후기를 쓰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부족한 저의 조언이지만 저와 비슷한 목표를 가진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에서 인천공항 브랜딩, 홍보 기획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의 특성 상 폭넓은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팀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젊고 여성적입니다. 이는 높은 여성 직원 비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이나 가정을 위한 휴직 · 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고, 회식이나 사내 행사는 많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는 여타 공공기관 대비 적지 않으며, 공기업과 사기업의 문화가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만족스럽지만 복지 제도의 경우, 자주 언론의 표적이 되어 많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사하실 경우 대체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 과정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등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서류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기업만 보고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통용되는,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자격증들을 미리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크게 TOEIC, TOEIC-Speaking, 한국사능력검정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최근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신 학교 · 학과 · 성적 · 나이 등의 정보를 평가에 일절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전형에서의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 자격증과 어학성적(높을수록 유리)을 통해 가점을 꼭 챙기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기 전형의 경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흔히 말하는 인적성 시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데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4학년 초부터 스터디를 모집하여 매주 1,2회 정도 분량의 예상 문제집을 풀고 오답과 풀이를 공유했습니다. 또, 실제 시험에서 끝 문제까지 쉬운 문제만 골라 풀고 1번으로 돌아가 다시 풀어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부의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푸느라 후반부의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고, 필기전형에서 90% 이상의 합격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형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객관식 경영학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금융공기업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에 지원했기 때문에 재무 · 회계 분야의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일반 경영학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금융공기업보다는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객관식 경영학 교재를 통해 좀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 합격 발표가 난 뒤, 바로 면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접은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NCS 기반 면접 질문을 제외하고는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외국어 · 토론 · 상황 대처 등 예측할 수 없는 유형으로 면접이 시행되기 때문에 면접 유형 자체를 준비하기보다는 공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천공항이 처한 상황(환승률 제고, 해외 진출 사업 등)에 대해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 가짐

취업 시장을 경험하면서 저는 학교 내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취업에 있어 필수라는 교환 학생 경험도, 인턴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 학생으로서 열심히 대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간 부산대학교 홍보대사로 일했으며, 근로 장학생과 멘토링 활동, 해외 도전과 체험 등 학교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최대한 참여했습니다. 또, 최종서 교수님을 도와 교토대학교와의 학술교류에 참여했고, 하승범 교수님과 함께 부산 지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효원 경영 편집부 활동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소소한 경험들로 채워진 자신만의 이력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4 두 페이지 남짓한 짧은 글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취업이든 취업 후 생활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taeil_kim@airport.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SAMSUNG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3반, 13학번 졸업생 이유현입니다. 휴학 없이 4년을 다니고 '17년 2월 졸업한 후에 5월 삼성전자에 합격한 경우라 선후배동기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린 적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라도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활동했던 것들을 잘 기록해 두는 것

이유현
(삼성전자)

●삼성전자 합격과정

사실 삼성전자를 뚜렷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학기간 내내 공기업/공무원/대기업/금융권이라는 큰 틀조차 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인사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 공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다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취업준비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 기초나 인력운용 같은 것들 것 공부하려고 했었구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해외영업마케팅 직군에 지원을 했고 합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사팀 신입채용 공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왔는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유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취업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질문에 대답했던 것들을 한 파일로 모아서 정리했었어요. 도전을 물어보면 이런 답변, 창의를 물어보면 이런 답변 형식으로요. 보통은 미리 정리해 둔 것들 중에 적합한 것들을 골라 해당 기업에 맞게 조금 각색한 뒤 작성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자기소개 문항이 조금 많이 두루뭉술한 편이에요. 삼성전자 지원동기/장기적 비전/성장과정/사회이슈 등을 묻고 있는데 마케팅 업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만큼 더 불문명한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강점이 있었다면,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드림클래스 강사활동과 캠프활동을 여러 차례 했었고, 다른 기업에서 장학금을 받거나 관련 활동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타 기업에 비해 얼마나 체계적으

로 일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느꼈었어요. 그런 감정을 바탕으로 글을 썼고, 제 성향 중에서도 삼성전자에서 반길만한 부분을 더욱 강조해서 성장과정을 썼습니다.

동아리 '성혜' 활동과 마케팅관련 과목 팀플을 하면서 제품군을 분석하고 마케팅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더 적합한 마케팅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취업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그래서 더 풍부한 경험을 말해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나 동기들 취업준비 하는 걸 보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저처럼 아무 목표없이 여기저기 지원하게 되면 내공이 쌓이는 것도 오래 걸리고 취업준비기간이 힘들고 길어지니까요. 하지만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그때 느낀 것과 새롭게 들었던 생각들을 잊지않고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활동했던 것들을 잘 기록해두는건 진짜진짜 중요합니다.

2. GSAT

문제를 많이 푸시고, 정확히 푸시고,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 과정이라고 해봐야 "GSAT 문제집을 사서 풀었습니다~" 밖에 없다보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방학기간 목표는 항상 기업 인적성 문제집을 3권, 3번씩 보자! 였지만 항상 서류 합격 발표가 난 이후부터 필기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나봐요.. 제 목표처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채부터는 상식영역이 폐지되니까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않게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면접

삼성전자 면접은 아침 6시정도부터 저녁 6시까지, 대기장에서는 종이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는 빡쎈 일정입니다. 하지만 면접관마다 다르겠지만 면접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잘했다라는 분위기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합격한 제 동기들만 봐도 다들 면접 때 완전 신나게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당시 다른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꼭 붙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공기업 입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아니면 면접관분들이 편해서였는지 있는말 없는말 다하고 나왔어요.(웃음) 많이 웃기도 했구요. 첫 면접이 임원면접이었는데 학점을 보시더니 "일본어 부전공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웃었더니 면접관님께서 "아니에요 ㅋㅋㅋ 그럴 수도 있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라고 해주셔서 나머지도 헛소리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면접에서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를 봐주셨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의 관련해서 활동했던 것, 삼성전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아이디어로 많이 드렸습니다. 직무면접이나 창의성면접에서도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나 스쳐지나가듯 생각해봤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들에 대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솔직한 태도로

임하면 나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무면접에서는 특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꼬리질문을 하시길래, 솔직히 잘 모르니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전에는 학생회 선배들 중 삼성전자 입사한 분들께 많이 여쭤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외영업마케팅 직군이 하는 일과 삼성전자에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구하는 자료들도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듣고 가는 게 긴장 풀기에도 면접을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삼성전자의 근무환경이나 회사생활은?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에요 ㅎㅎ 아직 신입사원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수평적인 분위기나 자율적인 근무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오늘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저녁시간에 초콜릿 만들기 강좌를 한다길래 참여해서 초콜릿을 가득 받아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회사가 더 좋네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인데, 내부에 필요한 것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드러그스토어나 마트같은 것들도 있고 건물마다 식당이 3개씩 있는데다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특별식, 테이크 아웃 등등 골라먹을 수 있게 식사를 굉장히 푸짐하게 제공하는 편이에요. 아침에는 주로 식당에서 메뉴를 테이크아웃 해와서 책상에서 먹는 편이구요.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있어서 부담되지도 않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율출퇴근제! 제 동기들은 10시나 11시쯤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채우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기도 하구요. 주말을 끼고 여행을 가야되는 경우는 금요일에 일찍 퇴근해서 공항으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우고, 내가 할 일만 다 한다면 크게 눈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부서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요.

이외에도 좋은 점들은 많은데 자세한 것들은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사팀 업무라 많은 분들이 채용설명회에 와주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굉장히 빈번하지는 않지만 또 그리 드물지 않게 직군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고, 덕분에 해외영업마케팅 직무로 합격했지만 인사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채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작성한 취업수기가 삼성전자 인사팀이 말하는 취업노하우다! 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전에 들었던 삼성전자는 냉혈한에, 개인주의적이라서 점심식사도 전부 팀원들이랑 안하고 따로 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친절하시고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여기도 사람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ㅎㅎ

5. 취업 준비하는 부산대 경영대학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업준비하기 너무 힘들죠.. 저도 작년 이맘때쯤 취업은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온통 암울하게만 살았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은 어디 한 군데씩은 다 취업해서 잘 되는 것 보면 희망을 놓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선택할 때 자기 적성이랑 성향을 잘 따져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잘 준비를 한다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힘내세요!

꿈은
스스로와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아득한
고민의 산물

경영학과 12학번
이재준

아 산 서 원
ASAN
峨 山 書 院
ACADEMY

1. 아산서원이 무엇인지?

아산서원은 故정주영 선생의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진 인재 양성 기관입니다.

교육목표로는 첫번째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 두번째로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는 것, 세번째로는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위해서 아산서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서원(書院) 교육과 현대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합니다. 문학, 사회와 문화, 역사,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배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 사회 저명인사의 특강 등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아산서원에서는 원생 전원이 아산학사(기숙사)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도록 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런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일 뿐 아니라 미래의 리더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질이기도 합니다.

국제 감각을 위해서는 아산서원 원생들은 미국(워싱턴)과 중국(베이징)의 유명 싱크탱크(정책연구소)와 비영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세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입니다.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산서원에서는 위와 같이 인문 소양, 공동체, 국제 감각 함양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생 한 명 당 약 1억원 정도 투자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1억원 짜리 스펙으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얼럼나이 활동을 통해서 기수 상호 간의 교류라는 인적네트워크와 졸업원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2. 아산서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산서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진로 고민이 가장 컸었습니다. 당시 경영학과지만 외교관을 생각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나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시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장)

3. 어떻게 합격하시게 되었는지

아산서원은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최종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첫번째로,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진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추천서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재밌었고 열심히 수업을 들은 교수님게 찾아봬서 부탁했습니다. 1차 면접에는 국문 면접, 영문 면접, 국문 논술, 영문 논술 총 4가지의 시험을 봅니다. 국문 면접에서는 취미가 무엇인지부터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교육기관이라서 그런지 면접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두번째로, 영문 면접에서는 일상적인 얘기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원어민분과 1:1로 보았습니다. 세번째로, 영문 논술은 토플 라이팅과 같이 주제를 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문 논술은 일반적인 대학논술과 유사했습니다. 어느 주제를 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나 찬반 양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직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산서원에는 매년 SKY뿐만 아니라 포항공대, 해외대학 등 우수한 인재들이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 우수한 스펙의 인재들과 경쟁해서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무례하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보여주고 오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식적으로 꾸며서 가면 더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자기소개서와 자기소개서에서 말한 활동들을 책으로 하나 엮어서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자소설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한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 진정성을 알아봐주었는지, 운이 좋게도 아산서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다른 원생들과 얘기해도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 아산서원은 정해진 인재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상의 모습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4. 활동을 하셨다면 활동내역이나 하게 될 예정이시라면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저는 5개월간 동안 서원에서하는 인문학 교육을 들었습니다. 인문학 수업에서는 군주론을 한국에 번역하신 교수님부터 미시경제학에서 유명하신 이준구 교수님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회와 문화,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들었습니다. 한 클래스에 10명 정도 밖에 없고, 토론식 수업이라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라는

자기 소개서

친구들과 진로에 대해 말하다 보면 누군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고 싶은 게 확실히 있어서 좋겠다, 고민할 필요 없이”. 하지만 친구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하나 들고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꿈은 제가 스스로와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아득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고민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대회의 발표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상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상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스스로 정말 행복하겠냐고 물었을 때 선뜻 “응.”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제 의지가 아닌 돈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 답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침 해외도전과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모집 중이었고,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실용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저는 Flipped Learning과 MOOC라는 것을 부산대에 연계해 도입해 보려 했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배워오자는 마음에 NPO뿐만 아니라 하버드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미국에 직접 다녀오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후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전에 없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이었습니다.

그 아득한 느낌들이 공허한 저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방구석에서 세상을 생각하며 정책보고서를 밤새워 작성하기도, 이를 나중에는 기업에 제안해보기도 했습니다.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노트북 하나로 세상을 위한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안들은 거부됐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대회에도 나가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수출방안을 컨설팅해 부산광역시장상을 받기도 하며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 오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한 번씩 해거리를 합니다. 해거리는 열매를 맺지 않고 뿌리만 내리며 내실을 키우는 해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그 열매는 어느 때보다 많이 맺습니다. 저는 지금 해거리가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제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저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동시에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미대사관의 멘토링을 수료하기도 하며, 외교부 행사에 참여해 정책제안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때마다 느꼈던 만족감을 위해 내실을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세상에 도전하려 합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은 제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해거리 또한 즐거울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원생들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다양한 기관에 배치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큰 편에 속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Asian Studies Center에서 다양한 리서치를 했으며, 헤리티지 재단의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미팅을 통해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 외교관들과 컨퍼런스 후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평소에는 볼 기회가 없는 분들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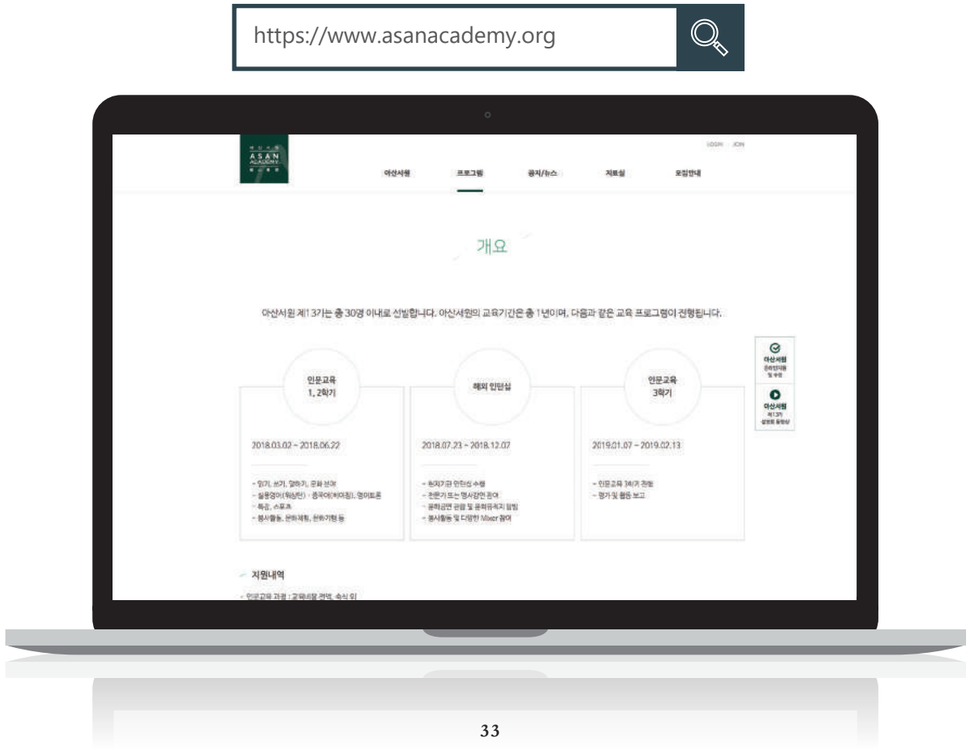
이렇게 인문학 수업과 인턴십 뿐만 아니라, 아산서원은 많은 활동을 제공합니다. 체육활동으로는 무한도전에서 나온 조정을 원생들과 해보기도 했고, 클라이밍, 볼링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문화활동으로는 다양한 뮤지컬, 미술전, 전시회 등을 지원해줬습니다. 또 봉사활동까지 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강으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은 만났습니다. 미국의 인턴십에서는 강연자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었고, 정말 유명한 연사분들이 와서 다양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있는 특강으로는 독일 연방대통령이 아산정책연구원에 들렸을 때 참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중국 인민대 교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5. 학우들에게 추천하신다면 조언이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학우들에게 아산서원을 추천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산서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아산서원을 가기 위해서는 1년을 휴학하지만 서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국내에서는 학사, 식사를 제공해주며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국외로 나갈때도 비자비, 항공료, 숙소 등을 모두 지원해줍니다. 5개월간 생활비로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정말 많은 과제에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과제는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과제는 대부분이 글쓰기며 저는 글쓰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하고는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운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워싱턴에서 인턴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기도 했지만 누군가 다시 시간을 돌려서 지원할 것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이 인문학과 세상을 배우고 싶다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을 아름답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 교환학생

경영학과 13학번
강민재

교환학생을 결정하게 된 계기

지금 와서 교환학생을 다짐하게 된 것을 떠올려 보면, 군대를 제대하고 두 학기를 마친 뒤에 대학 생활에 조금 싫증이 나서 휴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휴학 없이 특별한 일 없이 다시 3학년의 일상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대학 생활에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싫증 나는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에 교환학생 정규파견이라는 대외교류본부의 공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결심하고 난 뒤로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기고 해외로 나간다는 막연한 설렘 때문에 여느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토플 점수였습니다. 토플이라는 시험 자체도 처음이고 영어 시험에서 speaking, writing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하여 방학 동안 학원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토플 충족 점수를 준비해두고 다음으로는 어디로 파견을 갈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연하게 유럽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 명단을 보는데 너무 많은 국가에 많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중에서도 여기저기 이동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진 곳과 영어의 능통성이 높은 곳인 네덜란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환학생 생활

제가 파견되어서 6개월 동안 지냈던 곳은 네덜란드 동부 끝자락이며 독일의 국경과 접해있는 Enschede라는 도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과는 기차로 2시간이 걸리는 다소 먼 동네입니다. 처음에 사전 정보도 별로 없고 한국인조차 별로 없는 소도시여서 첫인상은 다소 따분하고 심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얼마 안 되는 한국인 친구들과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며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그만큼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녔던 트벤테 대학교는 네덜란드 3대 공대로 유명한 대학이다 보니 학생들이 학구열이 뛰어났고, 수업 방식 자체도 한국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식 수업에 익숙해 있던 저는 당연히 토론과 발표의 형태로 진행되는 그 수업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습과 예습을 중요시하는 네덜란드 교육의 특성상 학교 수업에 나가는 날이 많이 없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했으며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경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등 여러 수단으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장점을 이용해서 알찬 구경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나라들로는 네덜란드 국내 여행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고 아이슬란드입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 나라들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배우는 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의 여행을 통해 만난 동행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것과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난 여행 동행자이지만 지금까지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수업이나 여행뿐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다가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전에 무역관 담당자분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미팅 날짜를 잡고 무역관과 무역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정리하여 질의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은행과 한국의 은행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은행의 한 지점을 찾아가서 실례를 무릅쓰고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모두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돌아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꽤 도전적인 일들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결정의 시작은 휴학 대신에 선택했던 도피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마무리할 때 즈음에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배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주저 없이 교환학생을 도전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 교환학생은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들과 동화될 기회는 우리의 인생에서 쉽게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춘을 아름답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영 발전기금 사용목적

장학기금_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CPA수험생지원_ 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학술연구기금_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국제교류기금_ 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_ 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_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개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발전기금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경영 특별목적기금

목적성 축적기금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문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1대)
- 평생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3,000만원 이상)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총장)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4중 택1)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노대섭		48,000	강판수	㈜청강 대표	48,000
김일곤	경제학과 교수	30,000	구자용		30,000
노선호	풍경정화㈜ 대표	30,000	이상일		30,000
권청길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이원태	㈜경일통상 대표	30,000
이근철	㈜삼정 대표	30,000	김승영	㈜금영 대표	30,000
우한호	㈜피앤에이 대표	30,000	조관승	회계사	3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30,000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손영태	㈜케이씨 대표	30,000
구자봉	㈜미래파크 대표	20,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20,000
김종태	대표	20,000	이장생	㈜아남약품 대표	20,000
김태흥	㈜정관 대표	20,000	박태복	㈜티비카본 대표	20,000
최신형		18,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8,000
오명열		17,500	조영복	경영대학 제4대 학장	15,0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경국 대표	5,000	안태원	㈜한아 대표	1,000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박수만	용진건설㈜ 대표	2,500	송창년	대광닛불㈜ 대표	1,0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장지환	성도회계 지사장	1,000
박용득	용신건설 대표	2,500	곽선화	경영대학 교수	2,5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김태혁	경영대학 교수	1,386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변종문	상대동문	5,000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윤종진	47기	3,000
박철병	성도회계 지사장	2,000	이 석	MBA 48기 동문	10,000
방수한	AMP52 대표	2,000	AMP 67기		50,0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원				동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헌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화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27기 약 400,000							
33기	27,000	43기	35,000	50기	24,500	57기	26,000
36기	23,500	44기	23,000	51기	29,500	경맥 75동기	10,000
37기	29,500	45기	32,500	52기	21,500	전문경영자 2, 3기	10,000
39기	30,500	46기	23,000	53기	29,000	MBA 37기	2,500
40기	27,500	47기	34,000	54기	17,500		
41기	35,000	48기	29,500	55기	26,500		
42기	26,500	49기	29,500	56기	14,000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여명	10,000
이병걸	AMP 45기~54기 박종명 등 80여명	1,000
㈜신화사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1,000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	10만원 (2008년 6월부터)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부산대학교 발전기금'내에'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인(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전상우	MBA 43기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안 승	AMP 208대 총동창회장	1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주영찬	APM 60기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3,882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AMP 총동문회		30,000	변종문	상대동문	5,0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손영태	㈜케이씨	8,000	이우식	AMP 55기	1,000
문성옥	용원개발 대표	5,000	진병수	AMP 55기	1,000
김경희	AMP 59기	5,000	김용오	AMP 55기	1,000
송미란	MBA 41기	5,000	김영식	MBA 42기	1,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김동률	MBA 42기	1,000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박미현	MBA 42기	1,0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양길석	MBA 42기	1,000
MBA 44기 원우회		5,000	윤성차	MBA 42기	1,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조비송	MBA 42기	1,0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노사관계전문가과정5기		2,300
이상래	AMP 59기	3,000	최윤영	MBA 42기	1,000
민병권	AMP 59기	3,000	곽지영	MBA 43기	1,000
정희자	MBA 41기	2,000	김영이	MBA 43기	1,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김승태	MBA 43기	1,000
조규성	MBA 42기	2,000	김종범	MBA 43기	1,000
김영순	교직원	2,000	김창완	MBA 43기	1,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류제민	MBA 43기	1,000
황건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장	1,000	박기원	MBA 43기	1,000
채창호	MBA 42기	1,000	박동익	MBA 43기	1,000
김재오	AMP 59기	1,000	안지홍	MBA 43기	1,000
배근호	AMP 59기	1,000	이 인	MBA 43기	1,000
정동순	MBA 41기	1,000	이제용	MBA 43기	1,000
문병혁	MBA 41기	1,000	이창규	MBA 43기	1,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강민권	거림베스트	1,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권란희		1,000
김대철	AMP 55기	1,000	김현우		1,000
조강래	AMP 55기	1,000	최민호		1,000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MBA 42기	500	유용준	MBA 44기	300
전경준	MBA 44기	500	윤미라	MBA 44기	300
김정석	MBA 45기	500	이기만	MBA 44기	500
박미숙	MBA 43기	300	이상부	MBA 44기	5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이완범	MBA 44기	300
문희준	MBA 42기	200	이채성	MBA 44기	300
권춘오	MBA 44기	500	이현욱	MBA 44기	500
김민수	MBA 44기	300	정명진	MBA 44기	500
김범석	MBA 44기	200	조현진	MBA 44기	300
김부미	MBA 44기	300	진순미	MBA 44기	200
김준우	MBA 44기	500	채현식	MBA 44기	300
김현준	MBA 44기	300	최정진	MBA 44기	300
문주상	MBA 44기	300	홍승표	MBA 44기	300
박기호	MBA 44기	500	홍정혜	MBA 44기	500
신민화	MBA 44기	300	황경선	MBA 44기	500
신영섭	MBA 44기	200	정대교	MBA 44기	500

경영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수			
강상훈(3)	이찬호(1)	엄철준(3)	김정교(1)
고광수(5)	최수형(1)	장활식(1)	송태호(5)
김유일(10)	김종기(1)	최종열(10)	
김창호(1)	김진우(3)	김기석(1)	
홍태호(3)	옥기율(3)	이균봉(1)	
김동일(1)	조영복(3)	이장우(3)	
김명종(1)	곽춘종(1)	최종서(3)	
김진옥(1)	서문식(3)	최상문(3)	

동문			
김홍근(1)	전상우(10)	최해관(2)	이동은(1)
손인(10)	정광택(5)	전경준(2)	박정일(3)
김일우(3)	박윤봉(5)	김강수(1)	전우철(1)
김형석(2)	강정훈(5)	곽지영(5)	김진영(2)
이종훈(1)	김두성(5)	김정열(5)	진은경(3)
이진호(2)	김승태(5)	반태옥(5)	
한미영(2)	박인규(2)	오상진(1)	
김상철(2)	박기원(1)	이재훈(3)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10)	구태우(3)	김병선(1)	문병현(1)	이지희(1)	김휘학(5)	김동휘(3)
정민수(5)	오상표(3)	홍영표(1)	박진호(1)	정원호(1)	박일환(3)	장호일(3)
조정환(3)	정동수(3)	강병욱(1)	성유득(1)	조아라(1)	공경태(1)	조용환(1)
성낙필(3)	허재혁(3)	권한수(1)	이상후(1)	천정봉(1)		
공병진(3)	최정미(1)	김도균(1)	이주식(1)	허태원(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1)	김민희(1)	강헌태(1)	김영수(1)	이광희(1)	박근서(10)	나용주(1)
손정화(1)	김정동(1)	박상욱(1)	이동계(1)	이웅기(1)	예상우(5)	강명근(1)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엘큐어	18,000
박창수	㈜씨에스터	12,000
부산상대 동문		20,049
MBA 45기 원우회		10,0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5,000
김종현	㈜펠리테크	3,000
효원회		1,000
김태명	㈜케이시에스	2,000
최태은	SKC㈜	2,000
박상용	MBA 44기	500
배건우	MBA 45기	800
김명수	MBA 45기	200
김경래	MBA 45기	200
김 석	MBA 45기	200
김 직	MBA 45기	200
전인수	MBA 45기	500
채진호	MBA 45기	200
함란화	MBA 45기	200
김도형	MBA 45기	200
최종서	경영대학장, AMP 64-65기	30,000
배병수	MBA 45기	200
정회근	MBA 45기	200
오승주	MBA 45기	200

이종헌	MBA 45기	200
부산대 AMP 총동문회		10,000
김홍식	MBA 46기	300
배현열	MBA 46기	300
김보언	MBA 46기	200
오형록	MBA 46기	200
조민숙	MBA 46기	200
김영조	MBA 46기	200
허용숙	MBA 46기	200
홍성화	MBA 46기	200
이희영	MBA 46기	200
박성인	MBA 46기	200
박석은	MBA 46기	200
한종달	MBA 46기	200
강봉수	MBA 46기	200
MBA 46기 원우회		10,000
MBA 47기 원우회		10,000
박숙진	MBA 46기	1,000
이강호	MBA 46기	500
이 석	MBA 46기	1,000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61기	46,000	64기	50,000	67기	50,000
59기	25,000	62기	23,000	65기	60,000		
60기	30,000	63기	40,000	66기	50,000		

현물기부

임동찬	AMP 61기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 (4,500만원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이영희	금호	10,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3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강병춘	금오기전	10,0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경석회	OB	5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옥미화	송원식품	300			

교수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율	230		

동문		
김보두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500

재능기부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만수출판사	전단지

EDITOR'S COMMENTS
편집후기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은 여러분의 원고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효원경영 14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조교 이수지입니다. ^^ 대외교류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전화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최고참인 강민재학생과 새로운 기자인 김윤지, 김나령 학생이 힘써주었습니다. 참여한 기자단 학생들, 그리고 이번 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김종관 학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칼럼을 써주신 동문 여러분 및 우리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다음 호에 보다 알차고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조교 이수지**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덧 날 좋은 봄이 왔습니다. 이번 효원경영 14호 발간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효원경영 편집장을 담당하시던 지은 선생님과 전임 편집부원이었던 태일이 형과 우윤이가 모두 떠나고 새로운 편집장인 수지 선생님과 새로운 편집부원 나령이, 윤지와 함께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수월하게 편집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세 분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 학업 때문에 바쁘시면서도 시간을 내어 수기를 작성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해나가는 효원경영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3 강민재**

한겨울 동장군의 추위로 인해 외투를 여미고 다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가벼워진 학우들의 옷차림을 보며 봄기운이 완연함을 실감합니다. 3월은 비단 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 학기와 신 학년의 시작입니다. 또한 꽃봉오리를 틔우고 새순이 돋는 변화의 계절입니다. 우리 경영 대학도 지난 겨우내 학우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효원 경영에서 여러분들께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학기 새롭게 효원 경영편집에 참여하게 되어 혹여나 효원 경영에 누를 끼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존 활동자로써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민재 오빠와 함께 새롭게 참여하게 된 윤지, 그리고 효원 경영에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김지은 조교 선생님과 이수지 조교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더 나은 효원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5 김나령**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에 입학한지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이제는 벌써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헐레벌떡 지나간 시간 속에서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과 추억들이 쌓여있으며, 지금은 3학년의 초입에 서서 효원경영의 편집자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배들에게 효원경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꼭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그 편집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처음 맡은 편집이라 서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선생님과 편집 선배인 민재오빠, 나령이 언니의 도움을 받아 차차 완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효원경영의 제작에 미약하게나마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며 더 발전된 모습의 효원경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학과 16 김윤지**

효원경영

2018 SPRING vol.14

Come with PNU!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tel.051.510.1854 fax.051.581.3144